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믿고 기도하며 사랑하라

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

Tag:

1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2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3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4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6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눅18:1-8)

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24:12)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정하고 보니 오래전 영화의 제목을 닮은 것 같았다.(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2010, 줄리아 로버츠) 본적은 없지만,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 영화의 내용을 훑어 보았다.

사람들의 평은 두 종류. 페미니즘 영화다. 감동이 있는 영화다.

여주인공 줄리아 로버츠의 남편은 너무 전통적인 남편이었다. 미국식 모범생이었다. 석사공부를 하겠다는 말에 줄리아는 더 이상 희생적이고, 숨가쁜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혼한다.(이 부분은 매우 여성주의 적이다.)

그리고 이탈리아로 가서 실컷 먹는다. 몸매 생각은 잊어버리고. 이탈리아인들은 먹는데 진심이고(요즘 우리도 그렇다. 문화로 승격시킨 한국), 오전에 일하고, 낮잠을 즐기고, 해가 지면 문을 닫는다. 미국인은 이해하기 힘들다. (인생 좀 느긋하게 살아도 되잖니?)

인도에 가서는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한다. 남을 용서하는 법도 배우고,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인도라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약간 불교스럽다. +캐톨릭의 수도원스러운... (반면에 기독교 개신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매우 중심적인 종교라면, 불교는 세상을 초월해서, 개인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에 몰두한다. 반면에 기독교는 훨씬 사회적이고, 국가적이고, 역사적이며, 세상의 악에 대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을 강조한다.-그래서 매우 하드하게 살아간다. 또는 역동적으로? 또는 열정적으로? 이런 삶이 싫은 사람은 QT가 답이다. 그래서 종말을 향해 거친 바다를 향해하는 순례자의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그러다 보니 여성주의 보다는 가족이 우선시 되고, 자녀가 우선시 되고, 가족과 같은 교회가 중요하고, 공부가 중요하고, 일터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서 산 속에서 도를 닦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 일년에 몇 번씩 목상을 위해서 기도원을 찾는 것이 좋다.

결국은 사랑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 여겨서 발리에 가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사랑한다. 옹?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네? 결국 가정을 잃고, 세월을

않었지만, 원점으로 돌아왔으니 다행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역시 기독교의 주된 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다. 불의한 재판장 앞에 호소하는 여인의 청원이 결국에는 해결을 보게 된다는 내용이다. 비록 그 재판장이 악한 사람이지만, 여인의 지겨운 호소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 여인을 도와주게 된다는 이야기다.

결론은 이렇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가르침이다.

**7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 8 ~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런데 8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을 짚막하게 덧붙이셨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종말에 왜 믿음이 식어지는가?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그럴 듯 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하게 된다. 세상의 생각을 해석하고 진단해야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다.

-인자가 올 때는 종말이 가까워진 세상이 되었을 때를 말한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인데, 그때는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셨다.

**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24:12)**

누가복음과 연계해서 본다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고, 믿음을 보기 힘든 세상이 곧 인자가 올 즈음의 세상이다.

물론 마태복음 24장은 당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동일선상에 두고 기록한 측면이 있다. 마태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태와 생각이 같았다. 밀려오는 밀물과 같이 예루살렘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을 뒤섞어서 취급한 셈이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현상임을 잊지 말자)

사람들은 오해가 지나쳐서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루터도 교황을 미워한 나머지 천주교의 몰락을 세상 종말로 해석하기도 했다.

한때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을 혐오의 대상으로 핍박하였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미디어들이 이념 율법주의로 세상을 해석하는 시대가 되었다. 악하고 거짓된 의도가 담긴 뉴스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요즘 정치인들의 선동에 미혹되어 현 대통령이 정치를 아주 잘못하고 있어서 인기가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난 아닌데) 어제 뉴스 보니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17일 보도, 한국은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올해 2위의 경제 성적표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즉, 경제가 어려운 것은 세계 모든 나라의 현상이지,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뜻이다. 오히려 전 정부가 망쳐놓은 경제를 1년 반동안 좋은 성적으로 잘 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증보기도 하자.

과거에는 드라마가 집안 이야기/막장 드라마/결혼이야기가 대세였는데, 요즘은 부자 대 비정규직, 남자 대 여자(힘센여자 강남순, 도봉순, 힘센여자 장춘동?),

복수, 기승전-이산화탄소, 역사왜곡, 유대인 혐오가 아예 베이스로 깔려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불법으로 가득하다. 다만 미디어의 발달로 불법이 빨리 전파되고 많이 전파된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촉법소년들의 범죄도 사회문제가 되었다. 요즘에는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 검사를 독재자라고 소리를 높인다. 적반하장이다.

10년 전 2013년부터 검사를 악인으로 묘사한 영화들이 계속해서 한국 사회에 등장한다. 급기야 전 정부에서부터는 검사들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검수완박을 감행했다.

그러자 마약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모방범죄가 난무한 사회가 되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의 예언이 현재 우리나라에 현실화 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하는 것, 대선을 앞두고 이념 영화를 상영하는 것, 과거에는 국군영화가 성행했던 시절이 있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세상은 변하지 않았으나, 변치 않는 것은 성경말씀.

믿고 기도하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간절함이다. 아무런 힘도, 돈도 없는 가난한 노파가 무슨 수로 재판장의 선고를 얻어 냈는가? 간절함이다. 요즘 간절함이 사라졌다. 자신의 삶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고 앞 다투어 내달린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기도한다.

우리가 송내에서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제 아내는 기도했다. 아버지 카페 하나 주세요. 유리창이 많은 카페를 운영하고 싶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내에게 카페를 주셨다. 그 덕분에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

(당시 송내 예배당을 2억원 대출을 끼고, 1억 3천에 매입한 상황, 매달 이자를 내야 해서 더치커피를 제조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음)

두 자녀도 잘 커 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비합에서 청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금 이곳으로 올 수 있었고, 카페도 열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기도한다. 전도가 잘 돼서 교회가 부흥하게 해 주세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다. 그러나 전도하자. 하나님께 영혼을 추수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 이 시대에 걸맞는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

믿고 기도하자. 세상은 더 힘겨워졌다.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 그러나 항상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믿고 기도하자.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자. 고난을 이기는 힘이 여기에 있다. 말세를 이기는 힘이 여기에 있다. 환란을 이기는 힘이 여기에 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한 천년 살라고 하셨다. 그 후에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실 참이었다.

그러나 1000년이 100년이 되었다. 1/10로 줄었다. 1000년 동안 해야 할 일을 100년 만에 해야 한다. 그래서 20~30년 안에 공부도하고, 직업 교육도 마치고

직장생활 하면서 결혼도 성공해야 한다.

그리고 60이 될 때까지 애 낳고 기르고, 공부 가르치고 또 결혼도 시켜야 한다. 그야말로 눈코 뜰새 없이 살아야 한다.

그리고 60이후로는 손자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아야 한다. 80~100세까지는 기도하고 묵상하고 축복하며 살아야 한다.

그 틈바구니에서 며칠 째 내서 여행도 다녀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 정신 없이 살아야 보람있게 산다.

1/10밖에 시간이 없으니, 열심히 살아야 한다. 평생 일만 하고 살 수 없으니, 열심히 살아야 한다. 왜냐면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취직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노후대책도 마련하고, 손자도 돌보아야 하고, 교회도 가야 하고, 전도도 해야 하고, 여행도 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나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

진짜 행복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다. 지금의 삶은 그저 열심히 살며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예비하는 삶이 가장 훌륭한 삶이다.

그렇다고, 행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답이다.

아멘.

(과거에는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이제는 부모가 그런 요구하는 부모 없다.)